

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칠 영향

김 학 기
 (부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hkkim@kiet.re.kr

〈요 약〉

대일 수출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이며, 중소기업의 대일 주요 수출품은 일본이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관세만을 부과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FTA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한·일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들은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 때문에, 관세가 높은 품목들은 우리나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중국과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수년 내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일 FTA는 관세인하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 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공동 기술 개발이나 기술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술도입 수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일 FTA는 우리 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한·중·일 FTA 체결이나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미를 필요가 있다.

1.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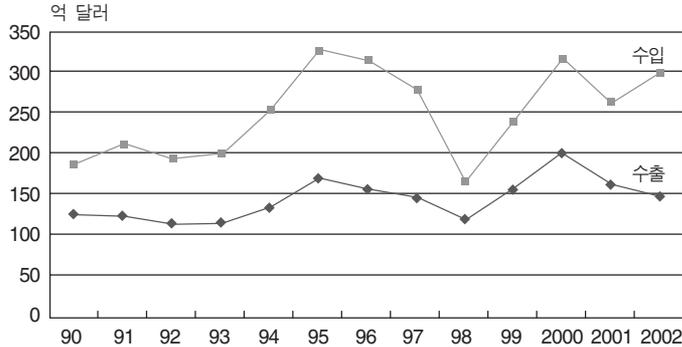
(1) 대일 총수출

2002년 대일 수출 총액은 151억 4,300만 달러, 수입은 298억 5,600만 달러로 약 14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일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9.7%였으나 수입은 19.6%로 여전히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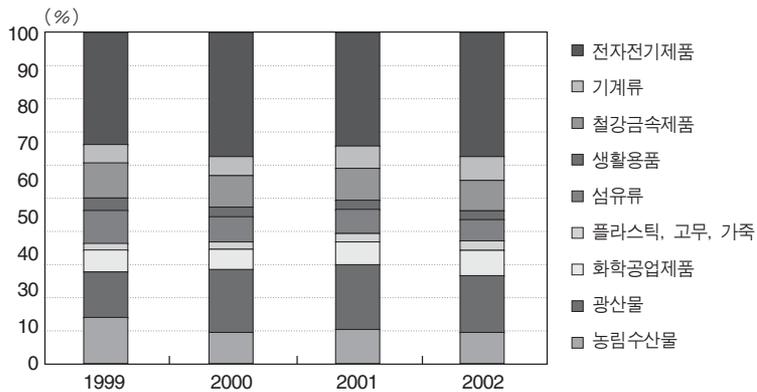
대일 수출품은 전자·전기제품, 광산물, 농림수산물, 기계류, 섬유, 화학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2002년의 경우 대일 전체 수출액의 37%를 차지하였다. 일

〈그림 1〉 한국의 대일 수출입 추이



자료 : KOTIS.

〈그림 2〉 한국의 대일 수출 품목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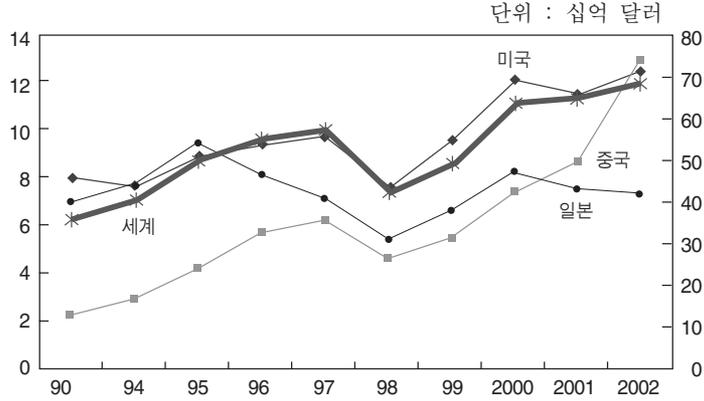
자료 : KOTIS.
주 : MTI 1단위 기준.

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류와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은 각각 6%와 3%에 불과하다.

대일 수출품 중에서 전자·전기제품,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류, 기계류 등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섬유, 철강,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등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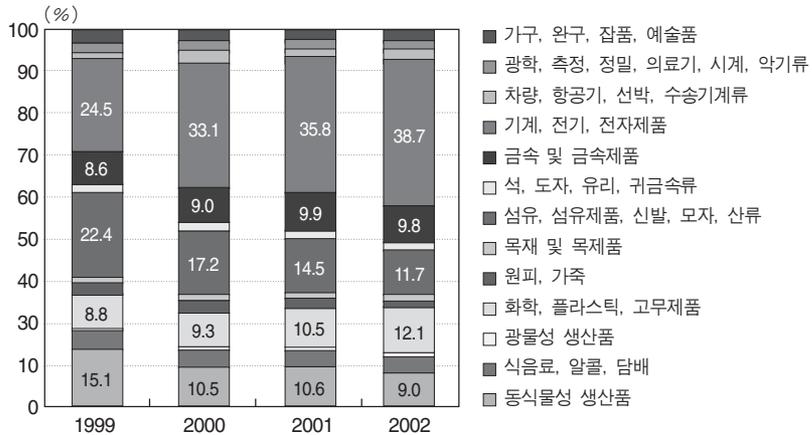
대일 수입품은 수출품과는 달리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2002년 대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전체 수입액의 37%를 차지한 전자·전기제품이고, 다음으로는 기계류(22%), 화학품(17%), 철강금속제품(15%) 등으로 이들 네 개 품목이 전체 수입의 91%를 차지한다.

〈그림 3〉 중소기업의 대세계 및 주요국 수출 추이



자료 : KOTIS.
주 : 우측 축은 세계 수출액.

〈그림 4〉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상품 구조 변화



자료 : KOTIS.

(2)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2년에는 1999년 대비 71.8% 증가한 6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에

서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약 40~43% 정도였으나 1998년 32%까지 급락한 후 점차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

국, 미국, 일본 등으로 2002년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약 절반(48%)을 차지하였다. 그 중 일본에 대한 수출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총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하였으나 중국의 영향으로 2002년에는 10.7%로 하락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중소기업 총수출의 19%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일 수출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만 하더라도 약 60%에 달했으나, 그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40%까지 줄어들었다. 2002년에는 대세계 평균(42%)보다 다소 높은 48.3% 정도였다.

중소기업의 대일 주요 수출품은 중소기업의 대세계 주요 수출품과 마찬가지로 전자·전기제품, 섬유, 기계, 화학제품 등이다. 그 중 기계·전기·전자제품, 화학·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섬유 및 신발류, 동식물성 생산품 등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수출 상품 구조 변화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의 영향이 대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인 기계·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이 중소기업의 전체 대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경우 24.5%에서 2002년에는 38.7%로,

화학·플라스틱제품은 8.8%에서 12.1%로 늘어났다. 반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류는 같은 기간 동안 22.4%에서 11.7%로 불과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동·식물성 생산품도 15.1%에서 9%로 감소했다.

2.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대일 수출 영향

(1) 상품군의 분류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은 일본 관세율이나 수출 규모, 일본에 대한 시장 점유율, 수출 증가율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 FTA로 인해 각각의 수출 품목이 받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세율과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5개 정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면 <표 1> 및 <표 2>와 같이 나누어진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10% 이상 부과되는 1군에 속하는 품목들은 2002년 현재 중소기업 수출액의 3%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10% 미만으로 부과되는 2군에 속하는 품목들은 20.1%를, 1~5% 부과되는 제3군에 속하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액도 2군과 비슷한 20.6%를 차지한다.

〈표 1〉 일본의 관세율 및 대일 수출 규모에 따른 상품 분류

단위 : 백만 달러, %

상품군	일본 평균 관세율 (HS 2단위 기준)	품목 수 (HS 2단위)	대일 총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군	10% 이상	11개	339	2.2	220	3.0
2군	5% 이상~10% 미만	22개	1,839	12.1	1,470	20.1
3군	1% 이상~5% 미만	33개	4,599	30.4	1,503	20.6
4군	0.1% 이상~1% 미만	14개	5,842	38.6	2,879	39.4
5군	무관세	16개	2,524	16.7	1,236	16.9
총 계		96개	15,143	100.0	7,309	100.0

주 : 1) 수출액은 2002년 기준.
2) 일본 평균 관세율은 2003년 실행관세율 기준.

〈표 2〉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 규모의 분류 기준과 수출액 비중

단위 : %

그룹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 규모	품 목 수 (HS 2단위)	대일 총수출액 구성비	중소기업 수출액 구성비
A	1억 달러 이상	14개	68.2	75.4
B	5,000만 달러 이상~1억 달러 미만	13개	22.2	12.4
C	1,000만 달러 이상~5,000만 달러 미만	33개	8.3	10.4
D	500만 달러 이상~1,000만 달러 미만	12개	0.8	1.2
E	500만 달러 미만	24개	0.6	0.6

주 : 1) 수출액은 2002년 기준.
2) 일본 평균 관세율은 2003년 실행관세율 기준.

관세가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4군에 속하는 품목들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39.4%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영향이 전혀 없는 5군에 속하는 품목들도 중소기업 수출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관세가 1% 미만 부과되는 품목들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이 56.3%로 절반을 넘고, 10% 이상 고관세 품목들에 대한 수출은 무시될 정도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FTA의 상품군별 대일 수출 영향

1) 10% 이상의 고관세 품목

10% 이상의 고관세 품목들 중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 규모도 커 FTA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HS 64, HS 20, HS 21, HS 19 등이다. 그러나 HS 64(신발, 모자, 우산류)의 경우 최근 4년간(1999~2002년) 대세계 수출은 28%

감소, 일본에 대한 수출은 58%나 감소하여 일본의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2년 현재 2.6%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 품목은 중국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이 급감하고 있어 수년 내로 대일 수출액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수년 내로 그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인 HS 20, HS 21, HS 19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및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다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규모가 작은 D, E 그룹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식료품(HS 18, 17, HS 04, 11) 관련 품목들은 소폭이나마 대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0.1~0.6%에 불과하고, 섬유류(HS 50, 43, 41)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제1군에 속하는 품목들은 식품류를 제외하면 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국의 관련 산업 자체의 쇠퇴로 인해 수년 내로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군의 주요 품목들인 식료품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수출 규모가 작은 데다 대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대일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낮은 점, 소비성향 등 식료품의 특성

등으로 비추어볼 때 FTA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2) 관세율 5~10%인 품목

5~10%의 관세가 부과되는 2군의 품목들 중 관세가 비교적 높고,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 규모도 커 중소기업에 대한 FTA 체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HS 03(수산물), HS 61(편물의류), HS 62(의류), HS 16(육류 및 수산물), HS 42(가죽제품), HS 07(채소), HS 08(과실), HS 63(방직용 섬유) 등 주로 식품류와 일부 섬유제품 등이다. 그러나 2군에 속하는 품목들 역시 1군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수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 되는 품목들은 식료품과 섬유류 두 종류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HS 63(중고의류), HS 58(특수직물), HS 52(면)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제2군에 속하는 품목들도 제1군에 속하는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식품류를 제외하면 FTA 체결로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모두 섬유 관련 품목들에 한정되고 있고, 이들 품목의 수출이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관세율 1~5%인 품목

제3군에 속하는 품목들 중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 규모가 커 FTA의 영향을 상당 수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HS 39(플라스틱), HS 29(유기화학품), HS 76(알루미늄), HS 95(완구, 운동용구), HS 71(장식품), HS 28(무기화학품), HS 12(종자, 식물), HS 27(광물성 연료) 등으로 주로 화학제품과 일부 식물류 등이다.

수출규모가 1억 달러 이상 되는 A그룹에 속하는 품목 중 특히 HS 39(플라스틱)와 HS 29(유기화학품)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뿐만 아니라 대세계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대일 수출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도 대부분 범용품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B그룹에 속하는 품목들 중에서는 HS 28(무기화학품)과 HS 27(광물성 연료)의 증가폭이 커 관세 철폐의 영향을 다소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B그룹에 속하는 품목들의 일본 시장 점유율 자체가 1.4~3.3%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관세율 1% 미만인 품목

일본의 평균 관세가 0.1% 이상~1% 미만으로 부과되는 4군에 속하는 품목들 중 관세가 극히 낮지만,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 규모가 커 FTA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 총액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HS 85(전기, 전자) 품목과 HS 73(철강제품), HS 90(계측기기), HS 72(철강), HS 48(종이류), HS 94(가구 및 조명기구), HS 82(공구류) 등이다.

對日 최대 수출품목인 HS 85(전기, 전자)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도 1999년에 비해 84%나 증가하여 앞으로 대일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품목에 대한 일본 평균 관세율이 0.2%에 불과한 데다 중국 제품들의 급격한 일본내 시장 확대에 따라 제품의 대일 경쟁력이 약해져 총수출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그치고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FTA에 따라 무관세가 된다 하더라도 HS 85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평균 관세가 0.6~0.8% 수

준이고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1억~3억 달러를 상회하는 HS 73(철강제품)과 HS 72(철강)의 경우는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15.4% 및 29.9%로 높은 데다 대일 수출 또한 점증 상태에 있어 관세 철폐시 수출 증가폭은 다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S 90(광학, 정밀, 의료용 기기)과 HS 48(종이) 관련 품목들도 일본의 관세가 0.2~0.3% 수준으로 낮지만 대일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수출 증가 효과가 다소 나타날 것이나, HS 90의 경우 일본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하고, 대세계 수출 증가율이 -51.4%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무관세 품목

무관세 품목들 중에서는 HS 84(기계)와 HS 87(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수출 품목들이며, 일본 시장 점유율도 HS 84(6.4%)와 HS 86(8.3%)을 제외하고는 모두 3% 이하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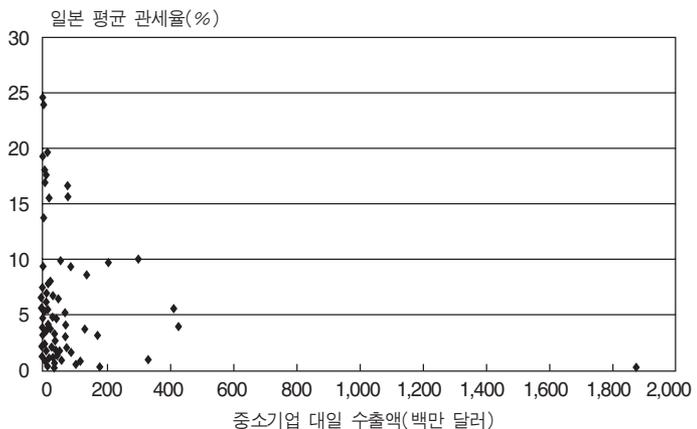
3.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 수출의 한계

(1) 수출 상품 구조상의 한계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은 사실상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며 수년 내로 그 수출증대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대일 수출 상품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일본의 평균 관세율에 해당되는

〈그림 5〉 중소기업의 품목별 대일 수출액과 일본 관세율의 대응 분포도



자료 : KOTIS, 일본 관세율.

주 : 1) 일본 평균 관세율은 2003년 실행관세율표의 HS 2단위 기준.

2)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액은 2002년 기준 HS 2단위 품목별 수출액.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을 상호 연관시킨 분포도 <그림 5>는 대일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관세가 높은 품목은 수출액이 적은 품목임을 보여 준다. 수출 규모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점유율도 높고,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들은 이미 일본의 관세가 1% 이하로 낮거나 무관세인 품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일본 평균관세율이 무관세이거나 1% 미만에 속하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현재 56.3%(대일 총수출은 55.2%)에 달한다. 반면, 평균관세율 10% 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3%(대일 총수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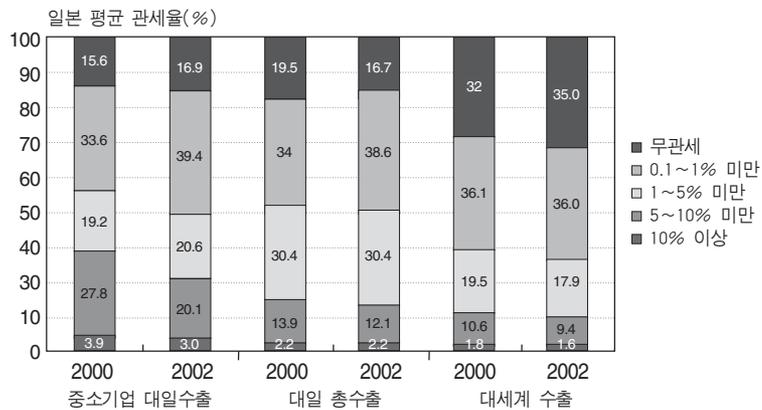
2.2%)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이 한국 상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하더라도 수출효과가 크게 나타날 고관세 품목의 수출 비중이 낮은 관계로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극히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2) 수출 상품 변화에 따른 한계

일본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일 수출 품목들의 비중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관세율이 낮거나 무관세인 품목들에 대한 대일 수출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서 1%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차지하던 비중은 2000년의 경우 49.2%(대일 총수출은 53.5%)였으나 불과

<그림 6> 일본 관세율에 따른 대세계 및 대일 수출 규모 구성비



자료 : KOTIS 통계 및 일본 실행 관세율 2003.

주 : 수출액은 2002년 기준.

2년이 경과한 2002년에는 56.3% (55.2%)로 증가하였고, 관세가 5% 이상 부과되는 품목들의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31.7%(대일 총수출은 16.1%)에서 23.1%(14.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같은 추세라면 대일 수출품의 대부분은 수년 내로 무관세 또는 1% 미만의 관세만 부과되는 상품으로 구성되고,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대일 수출품 대부분이 무관세 또는 1%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집중될 것이므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거의 사라져 관세 측면에서는 FTA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관세가 높아 FTA 체결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거의 섬유류와 식품류에 한정되고 있는데, 특히 섬유류의 경우 대일 수출은 물론 대세계 수출도 중국 등의 영향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3) 수출 상품 경쟁력상의 한계

2002년 현재 일본의 평균 관세율 1% 미만에 속하는 품목들 즉, 전기·전자·기계류 등이 우리나라의 대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인데 비해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2%에 그치고 있다. 그 차이는 관련 품목들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거나 일본의 유통 시장 등의 문제 때문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류(HS 84)의 경우 2002년 우리나라의 대일 총수출액은 약 22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약 38%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품목의 대세계 수출은 6.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차이의 존재는 향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경쟁력 차이로 인해 대일 수출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전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4. 시사점

일본이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들은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 때문에, 관세가 높은 품목들은 우리나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중국과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한·일간 무역관계나 경제관계만을 고려한 분석 결과에 기초

하여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한·일 FTA 효과는 아무 것도 남지 않고 일본 기업들에 국내 시장만 완전히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이 세계의 생산 기지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도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어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기대만큼 대한국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은 물론 일본으로서도 한·일 FTA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할 뿐더러, 중국 시장이 한·일 FTA 체결로 형성될 한·일 양국의 시장 크기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일 수출입 추세로 볼 때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일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증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중국 경제의 급팽창과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라 관련 하청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중

소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도산 등을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한·일 FTA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의 계기가 되지 못할 경우 한·일간 관계보다는 중·일간 산업적 보완관계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입지가 매우 불안해질 수 있고, 산업공동화 현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저급기술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한·일 FTA는 관세 인하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공동 기술 개발이나 기술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도입 수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일 FTA는 우리 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한·중·일 FTA 체결이나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 